

# 내외 소식

## 서울 스테이크 대회

2월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는 총 관리역원이신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사도님 부처를 모시고 “말일성도 가정의 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간 스테이크 대회를 개최하였다.

1천 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본부 총관리 역원과 스테이크 역원에 대한 회원의 지지가 있었으며, 21명의 장로가 탄생되었다. 19일에 있었던 신권 역원회에서 힝클리 사도님께서 성도들이 지표로 삼아야 할 네 가지의 주춧돌에 관한 영감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본 대회에 특별 찬송을 맡았던 2와드소녀 합창단의 노래는 이 모임의 분위기를 승화시켰으며 힝클리 사도님은 이들의 노래에 앙골을 청하시고 평생토록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다고 극구 찬양하셨다.

이번 대회를 통해 1명의 대제사와 21명의 장로가 탄생되었다.

새로 지지된 형제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제사 : 장 세문(3와드)

장 로 :

서울와드 : 권 오량, 주 은용, 박 광식, 한 덕상,  
김 태경

2와드 : 유 관목, 이 형근, 김 선진

4와드 : 이 준구, 한 원득

5와드 : 장 원서

6와드 : 강 원배

7와드 : 허 병석, 서 정욱, 선 무경, 장 정남,  
선 명헌, 곽 영우, 김 욱, 조 정환

신촌지부 : 홍 영순



## 지역 모임

해마다 2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모임이 금년에도 지역대표이신 폴 씨 앤드류스 장로를 모시고 1974년 2월 16일 서울 스테이크 제 4와드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선교부산하 각 지방부와 스테이크 산하 각 와드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는 아론 신권 상향회와 주일학교 및 신권반으로 나뉘어 각 조직과 지역의 특수성을 뜻깊게 토론하였다. 예년과는 달리 보조조직을 담당 한 본부임원들이 오지 않고 서울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이 지역 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아 모든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오후 3시부터 개최된 이 모임은 저녁 8시에야 끝을 내렸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많은 자질들을 새롭게 익혔고 그들의 간증을 더해 갔다.



## 경기 지방 대회

지난 2월 9, 10일 양일에 걸쳐 경기 지방 대회가 열렸다. 형제 2명이 대신권을 받고, 동인천 지부 회원들은 피아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핫도그를 굽고, 바자 준비를 하는 등 열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선교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규정한 점에서 볼 때 크게 의의가 있는 대회였다.

브라운 선교부장은 각 회원에게 1년 동안 적어도 한 가족(구도자)을 금식과 기도로 선정하여 이들의 개종을 도와 주도록 목표를 주셨고, 특히 지부 선교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회원이 직접 구도자를 찾고 우정 증진을 하여 선교사들로 하여금 다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도록 강조하셨다.

## 132돌 상호 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지난 3월 16일 4와드에서는 약 210명의 상호부조회 회원이 모여 132회 상호 부조회 창립 기념 특별 모임을 가졌다.

1842년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부인 엠마 스미스를 초대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9대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 온 상호 부조회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스로건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서울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전 회장인 윤 창숙 자매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된 민 순임 자매—고등 평의원 김 상호 형제의 부인—는 그의 제 1보좌로 유 정자 자매를, 제 2보좌로 고 옥진 자매를 지명했다.

서울 스테이크 산하 전 와드와 지부가 참석하여 가진 이번 모임중 특히 재능 발표회에는 각 와드에서 독창력을 살려 의욕적으로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흐뭇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부부 동반을 겸하여 가진 재능 발표회를 펼쳐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와드에서는 초등협회 어린이 발표가 있었고 2와드는 연극, 무용, 3와드는 전체 어머니 회원의 민속 무용, 4와드는 4중창, 5와드는 합창, 6와드는 엉터리 오케스트라, 7와드는 무용과 가야금독주 및 미스 물론 컨테스트 그리고 신촌 지부에서는 연극과 독창으로 자매들의 실력을 과시했다.

스테이크 부장님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모임은 신임 회장의 인사 말씀, 문 시우 담당 고등 평의원의 영적인 말씀과 각 와드의 재능 발표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3와드 회원인서 정  
홍 형제는 부친 서 원  
섭 교장이 설립한 군  
포 고등 공민학교에서  
불우한 학생을 가르치  
기에 여념이 없다.

신문기사에 소개된  
바와 같이 훌륭한 사  
업에 모든 것을 바치  
기로 결심한 3와드의  
서 정홍 형제는 지나  
친 과로로 앓아 누워  
야 했던 때가 한두번  
이 아니었다고 주위사  
람들은 이야기하고 있  
다.

서 형제는 10여년의

## 서 정홍 형제 불우한 학생 교육에 여념이 없다.

교회 경력을 가지고 있  
으며 현재 신권회 서

기로 일하고 있다.  
이를 취급한 3월 4일

자 국민신문의 기사  
를 함께 실는다.

### ◀현지 탐방▶

세태가 작박해지고 사도가  
문제되는 요사이 자신의 모  
든 것을 바쳐 농촌의 가난  
한 소년들을 교육하는 교육  
자가 있어 사도의 귀감이되  
고 있다.

안양역을 지나 수원 가는  
국도를 약 5Km 달리면 군  
포라는 조용한 마을이있다.  
주위의 뜸지막한 공장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담한 학교가있  
으니, 이것이 바로「군포고등  
공민학교」이다.

이 학교의 서원섭(64세)  
교장은 일본 와세다대 고등

## 교육자의 사표 서원섭 교장

사범부 영어과를 나온후 1953  
년 도미, 「네브라스카」주립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귀국후에는 외국어대학 초대  
부역과장으로 동학파를 창  
설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4년전인 1970년초  
에 외대교수직을 사임한 서  
교장은 농촌의 불우한 청소년  
들에게 산 교육을 실시하  
고자 하는 일념에서 그의희  
직과 전 가산을 기우리다  
시피하여 마련한 돈으로「군  
포」에 학교를 설립하여 지난

금도 부인 김여사는 삼청동  
집에서 하숙을 경영하면서까  
지 학교운영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장남 정우(37세)씨는 아  
버지의 뒤를 이어 역시「네  
브라스카」대학에서 석사학위  
를 받고 현재 뉴욕의 모회사에  
근무한다는데 가정적으로도 열  
마든지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모든 개인적인 안일  
과 평안을 핑계치고 오직교  
육일념에 차있는 노교육자를  
대할때 숙연해지기조차 하  
였다.

새마을 운동은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서 부  
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그는 부모는 자녀의 어  
린시절부터 사치와 낭비를배  
격하는 습성을 길러주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직시 평소 강의시간에서  
도 내뱉, 절약, 검소를 말하  
곤 했다고 귀띔해주던 대학  
시절의 한 제자는 사회에나  
와서도 스승의 교훈을 잊지  
않고 생활한다며 많은 동기생  
들도 선생의 강의시간을 못  
잊어 한다고 말했다.

일찍이 구미 선진제국의 고  
육제도를 직접 체험해본 그  
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고  
등공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의 보다 따  
뜻한 지원과 혜택을 아쉬워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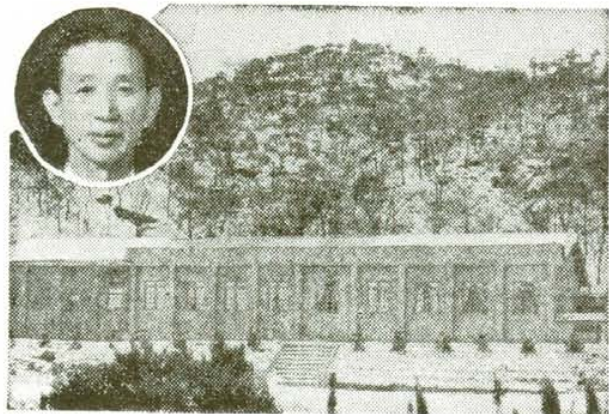
당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보여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골쇄신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  
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 공민학교 설립코 후진양성 부인도 군포까지 도시락날라

2월6일에는 제2회 졸업생  
17명을 배출하는 감격의 졸  
업식을 가졌고 그들 모두가  
취직을 할수 있었음은 서교  
장의 평소 교육방침이 어머  
한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처음이냐 지금이나 어려웠  
던 일은 일일이 열거할수도  
없다고 말하는 부인 김경자  
(54세)여사는 2년간 매일  
삼청동집에서 군포까지 도시  
락을 싸들고 왕래했을 때도  
힘드는줄을 몰랐으나 차남 정  
웅(30)씨가 학생들을 가르  
치는 일에 과로했던 나머지  
폐결핵으로 앓아 누워야 했  
을때는 가슴이 아팠다고 지  
난날을 슬피했다.

그러나 어려운 학교사정에  
교사봉급 주지조차 힘들어 지



◇군포고등공민학교전경 (원내는 서원섭교장)

## 김 해성 형제 도미

현재 서울와드에서 감독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김 해성 형제가 사업차 3월 22일 도미했다.

고려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김 형제는  
뉴욕에 가있는 형과 함께 부친의 사업을 돕기 위하  
여 떠났다.

## 고 원용 형제 필립핀에

현재 3와드의 감독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고 원용 형제가 그의 소속 회사인 IBM에서 주최하  
는 기술 연수차 3월 9일 필립핀으로 떠났다.

3개월 예정으로 떠난 고 원용 형제는 훌륭한 신  
권 지도자로 와드에서도 덕망이 높은 형제이다.

## 신학 연구원 입학식 갖다

지난 3월 2일 무교동 남강 빌딩 내에 있는 신학

연구원에서는 7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재학생 개  
강식을 오후 5시에 여러 신권 지도자를 모신 가운  
데 가졌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을 비롯한, 스테이크 부  
장단, 브라운 선교부장이 참석, 말일성도가 배워야  
할 경전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더 실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